



LENT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여정

LENT

히브리서 4장 14~16절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총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독교 신앙의 왜곡은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발현되곤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상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별을 요청하고, 그 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에 대한 발견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단지 자기만족이나 자기 발견 자체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며,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14절) 일입니다.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라”(16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 파레스시

LENT

아'(meta parresia) 즉, 파레시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파레시아'는 네 가지의 뜻, 대범함(boldness)과 확신(confidence), 자유(freedom)와 개방성(openness)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자유롭게 대범하며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허락되는 종교체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숨겨지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을 평가받을 때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은총의 자리

LENT

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하며, 하늘의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히5:7~8).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둠에 빠졌을 때, 시련을 겪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으며, 제 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LENT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눈으로 보다오르는 건강한 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동부선린교회

담임목사 곽 선 근

천현성전 | 12956 하남시 하남대로654번길 22-10
새능성전 | 13025 하남시 산곡동로86번길 42
사무실 031)793-3179 팩스 031)793-3172
www.dbsunlin.com



홈페이지

www.dbsunlin.com



YouTube

동부선린교회

검색



유튜브